U+프로야구
SK텔레콤, KT 고객도 U+프로야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ONE스토어/Play스토어에서 [U+프로야구]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겨야 한다 … 골이 필요하다

멕시코전 손흥민·황희찬 투톱

24일 2차전 공격 쌍두마차 출격

손흥민

황희찬

'손흥민의 득점력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라.'

2018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였던 스웨덴과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0-1 패배를 당한 신태용호가 꺼져가는 16강 진출 불씨 살리기와 조별리그 조기 탈락 확정의 갈림길이 될 24일(한국시간) 멕시코와 2차전을 앞두고 '손흥민 활용법'을 고심하고 있다.

신 감독은 18일 열린 스웨덴과 첫 경기에 스리톱을 가동하면서 손흥민(토트넘)을 왼쪽 측면 날개로 기용했다.

김신욱(전북)에게 원톱을 맡기고, 오른쪽 날개에 황희찬(잘츠부르크)을 배치함으로써 좌우 측면의 손흥민과 황희찬의 빠른 돌파를 이용해 득점 기회를 노리겠다는 신태용 감독의 승부수였다.

하지만 손흥민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 기용은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

손흥민이 이 자리를 선 적이 많았다. 하지만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바람에 중앙을 파고들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손흥민의 장은 상대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손흥민은 스웨덴전에서 전후반 90분을 풀타임으로 뛰었지만 슈팅은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대표팀 전체 '유효 슈팅 제로'와 맞물려 손흥민의 '슈팅 0개'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멕시코전에는 손흥민의 활용 방법에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표팀은 베이스캠프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복귀 후 첫날이었던 19일 오후에는 1시간가량의 피로 해소 훈련만 진행했다.

20일부터 진행된 담금질을 통해서 손흥민이 플랜A 공격조합인 투톱으로 복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손흥민은 공격 쌍두마차인 황희찬과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을 때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투톱으로 나선 지난달 28일 온두라스전과 1일 보스니아전에서 둘은 1골 도움 2개를 합작했다.

손흥민은 온두라스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었고, 황희찬은 두 경기 어시스트를 배달했다.

개인기와 스피드를 겸비한 멕시코에 맞서 손흥민-황희찬 듀오가 재출격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한국 축구 레전드에서 축구 해설가로 변신한 박지성 SBS 해설위원은 앞선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멕시코전 활용법과 관련해 "손흥민에 한 방을 기대하는 건 결정력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그런 능력이 팀에 없다면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손흥민의 결정력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보다 공격적인 손흥민의 활약에 기대를 걸었다.

신태용 감독이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끌어올려 황희찬과 함께 멕시코의 골문을 열 공격 쌍두마차로 출격시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일본, 콜롬비아 2-1 꺾어

월드컵 출전 80년만에 남미팀 이긴 첫 아시아팀

일본이 콜롬비아와 리턴매치에서 4년 전 완패를 설욕하고 월드컵 역사에서 남미팀을 이긴 첫 번째 아시아팀이 됐다.

일본은 19일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콜롬비아를 2-1로 꺾었다.

전반 3분 상대 중앙 미드필더 카를로스 산체스의 퇴장과 함께 페널티킥을 얻은 일본은 가가와 신지가 선제골을 넣은 뒤 전반 39분 후안 킨테로에게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내줬다.

하지만 후반전 수적 우위를 앞에서 파상공세를 펼치다 28분 코너킥 상황에서 오사코 유야의 헤딩골로 승부를 갈랐다.

4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한 조(C조)에 속했던 두 팀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만나 일본이 콜롬비아에 1-4로 졌다.

당시 일본은 1무 2패로 조 4위로 탈락했고, 콜롬비아는 3전 전승으로 16강에 오른 뒤 우루과이마저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일본은 아시아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일본의 승리로 아시아 국가는 월드컵에 출전한 지 80년 만에 처음으로 남미 국가에 승리했다.

일본이 콜롬비아에 승리하기 전까지, 아시아 대륙은 월드컵에서 남미 대륙에 통산 3무 14패로 절대 열세였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월드컵에 출전한 건 1938년 프랑스 월드컵의 인도네시아다.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라는 국명으로 출전했던 인도네시아는 1회전에서 헝가리에 0-6으로 대패했다.

아시아와 남미의 월드컵 첫 만남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의 북한-칠레전이다. 당시 북한은 칠레와 1-1로 비긴 뒤 이탈리아를 1-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한국이 볼리비아와 0-0으로 비기기 전까지, 아시아는 남미에 6연패를 당했다.

일본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파라과이를 만나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5로 패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만을 강조해왔던 아시아 축구는 화려한 기술을 앞세운 남미 국가에 기를 펴지 못했다.

10번의 월드컵 본선 진출로 아시아 대륙 최다를 기록 중인 한국도 남미 팀에는 통산 1무 4패로 약했다. /연합뉴스

"우리도 골이 필요해" … 메시·네이마르 2차전 벼른다

메시, 22일 크로아티아전 골잡이 자존심 되찾기 나서

아이슬란드의 '얼음 성벽'에 갇혔던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스위스의 '얼음 창살'에 집중포화를 당한 브라질 대표팀의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골잡이 자존심' 찾기에 나선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전 세계 축구팬들은 '메시·호날두·네이마르·살라흐'로 이어지는 '판타스틱4'의 풍성한 소나기골 행진을 내심 기대했다.

'판타스틱4' 가운데 가장 먼저 경기에 나선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16일 '무적함대' 스페인을 상대로 이번 대회 1호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팀의 3-3 무승부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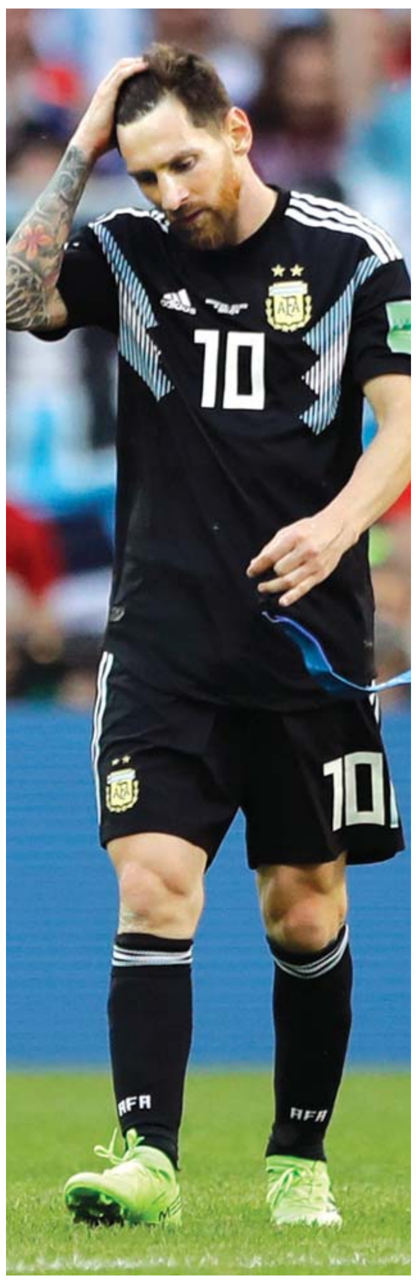
호날두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는 메시였다.

하지만 팬들의 큰 기대를 받은 메시는 지난 17일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아이슬란드의 철벽 수비에 막혀 득점포 사냥에 실패했다.

메시는 무려 11차례의 슈팅을 시도했고, 이 중 3개가 유효슈팅이었지만 끝내 골문을 흔들지 못했다.

팬들은 세 번째 주자로 나선 네이마르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무참한 '반칙'에 수시로 넘어지는 네이마르의 고통스러운 표정만 바라봐야 했다.

네이마르는 18일 스위스와 E조 1차전에서 90분 풀타임을 뛰는 동안 4차례 슈팅(유효슈팅 2개)을 했지만, 득점으로


아르헨티나 메시

브라질 네이마르

네이마르, 코스타리카전서 나바스 상대 득점 노려

이어지지 않았다.

스위스 선수들의 엄청난 반칙 세례 때문에 제대로 경기를 치르지 못한 게 부진의 원인이었다. 브라질은 19개의 반칙을 당했는데 이 중 10개가 네이마르에게 집중됐다.

마지막으로 어깨부상으로 힘겹게 러시아 월드컵에 나선 이집트의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는 1차전을 건너뛰고 20일 개최국 러시아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에 출전해 페널티킥으로 득점에 성공했지만 팀의 1-3 완패로 빛이 바랬다.

이런 가운데 메시와 네이마르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무너진 '골잡이 자존심' 되찾기에 나선다.

메시는 한국시간 22일 오전 3시 '동유럽' 강호 크로아티아와 D조 2차전에 나선다.

크로아티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한솥밥을 먹는 이반 라키티치를 비롯해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인 루카 모드리치와 마테오 코바시치도 버티고 있다. 누구보다 메시의 약한 고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들이다.

네이마르도 22일 오후 9시 '북중미 강호' 코스타리카와 E조 2차전을 벼르고 있다. 이번 대회 첫 득점을 노리고 있지만 코스타리카에는 '거미손' 케일러 나바스(레알 마드리드)가 버티고 있어 네이마르의 골사냥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러시아, 막강 화력에 행운

이집트 3-1 제압 2연승 구소련 이후 첫 16강 기대

러시아가 2경기 8골로 개최국의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며 월드컵 16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러시아는 20일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이집트를 3-1로 제압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차전에서 5-0 대승을 거둔 러시아는 이로써 2승(승점 6)으로 A조 1위로 올라서며 16강 진출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집트가 2패로 16강 진출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나머지 3개 팀이 나란히 2승 1패를 거둘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는 골득실차 +7로 조별리그 통과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러시아가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이름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16강 무대를 밟는 날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7번의 월드컵에서 4강 1회, 8강 3회 등 막강한 전력을 보였으나 구소련 해체 이후 월드컵 성적은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러시아가 16강 진출을 목전에 두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줬다.

러시아는 세계 랭킹이 70위에 불과하지만, 개최국 자격으로 1번 포트에 선정돼 독일, 브라질 등과 같은 강팀을 피할 수 있었다.

조 추첨에서는 이집트(45위), 사우디아라비아(67위) 등 약팀들과 한 조에 묶이는 행운이 뒤따랐다.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창인 무함마드 살라흐는 어깨 부상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주름잡았던 기량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날 이집트전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2분에 상대 자책골로 승기를 잡았던 순간도 운이라면 운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막강 화력만은 진짜였다. 러시아는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5-0으로 대파하고 월드컵 역대 개막전 최다 골 승리를 장식했다.

사실 러시아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자국에서 심각한 우려를 샀다.

하지만 정작 대회가 시작되자 러시아 선수들은 홈 관중의 뜨거운 응원 속에 부지런한 전방 압박과 다양한 공격 전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볍게 요리했다.

러시아는 8골 가운데 페널티킥으로 얻은 득점이 없을 정도로 순도 높은 공격력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러시아 월드컵 자책골 풍년 … 17경기서 무려 5개

1998년 단일대회 최다에 -1 역대 21차례 대회서 총 46개

팀 동료를 당혹감에 빠뜨리는 자책골이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풍년이다.

20일까지 조별리그 17경기를 치른 가운데 자책골이 5개나 나왔다.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때 전체 자책골 숫자와 같은 수치이며 1개만 더하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작성된 역대 단일 대회 최다 자책골 기록과 타이를 이룬다.

이번까지 역대 21차례 월드컵 무대에서 나온 자책골은 46개로 늘었다.

러시아 월드컵에선 모로코의 아지즈 부핫두즈가 첫 자책골을 기록했다.

부핫두즈는 16일 이란과의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때 이란의 프리킥 공을 머리로 걷어내려다가 그만 자신이 지키던 골 안으로 집어넣었다.

1-0으로 승리한 이란은 월드컵 본선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8년 만에 승전고를 울리고, 52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서 후반전 슈팅 없이 승리한 팀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호주와 나이지리아도 자책골의 불운을 맛봤다.

호주 애지즈 베이이치는 FIFA의 기록 정정으로 대회 두 번째로 자책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프랑스 폴 포그바는 16일 호주와의 C조 1차전에서 1-1로 맞선 후반 36분 중원에서부터 직접 볼을 치고 나가 골문으로 쇄도한 뒤 올리비에 지루의 패스를 되받아 문전을 향해 슛했다.

슈팅은 호주 수비수 베이이치의 몸을 맞고 공중에서 꺾였고, 호주 골문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 안쪽에 떨어졌다.

골라인 판독을 거쳐 득점으로 확정된 포그바의 골은 나중에 베이이치의 자책골로 수정됐다.

. /연합뉴스